

주제회의  
어린이청소년

##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불평등의 현실<sup>1)</sup>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이 발표문은 발표자가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수행한 연구보고서 「생애 교육 불평등의 실태와 대안」(경기도교육연구원, 2022) 과 「평등교육실천론」(경기도교육연구원, 2020)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두 보고서의 원문은 경기도교육연구원 홈페이지([www.gie.re.kr](http://www.gie.re.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1. 들어가며

평등에 대한 지향을 실현하는 데 교육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받은 시민이 많아질수록 평등에 대한 지향도 강해질 것이며,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는 보다 평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근대 공교육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책임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 교육이 근대 시민혁명 이후 확산된 평등 이념에 부합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건이나 신분, 성별 등에 구애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에 머물러있던 교육을 공적 영역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위대한 평등장치(great equalizer)라고 표현했던 호레이스 만(H. Mann)의 언급이나 보통학교(common school)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이와 같은 신념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귀속적 특성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이를 통한 사회계층 구조의 재생산에 주목했던 연구자들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들에서는 교육 불평등과 관련된 여러 이론에서 개념화한 제 자본에 주목하고 있다.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대표되는 경제 자본, 부모가 맺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가정에서의 교육적 관여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자본, 지배계급이 향유하는 문화 활동이나 독서, 특정 언어의 향유 정도로 대표되는 문화자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백병부·김경근, 2007; 변수용·이성균, 2021). 이들 자본을 활용하여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보고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들 자본이 학업성취나 학력(學歷), 사회적 지위획득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례로 가정 배경은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의 보유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백병부·김경근, 2007), 유아교육 및 보육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오욱환, 2017), 사교육을 비롯한 학교 밖 교육의 참여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전하람·심재휘, 2018). 또한 가정 배경은 특목고나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 진학 확률 및 이에 따른 계층 간 교육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심재휘·김경근, 2017),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 수준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학 진학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희진·남궁지영, 2019). 나아가 가정 배경은 진학한 대학의 서열을 매개로 하거나 독립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박미희, 2020).

최근에는 다양한 시계열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통시적 관점에서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일례로 여러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Origin), 자녀의 교육(Education),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Destination)로 구성되는 지위 획득 모형(O-E-D 모형)을 근거로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의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대학교육의 영향력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보고하였다(김준형, 2018; 김창환·변수용, 2021; 변수용·이성균, 2021). 이와 같은 연구의 일부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해지고 있으며, 가정 배경이 자녀의 학력(學歷)에 미치는 영향이나 학력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예전보다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창환·변수용, 2021; 변수용·이성균, 2021)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이동이 활발한 개방사회이며, 여기에 교육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 불평등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동시에 여러 연구에서는 최근에는 이와 같은 추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앞선 결과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시장의 확대와 교육 팽창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최근에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어서 앞선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양흥권, 2012; 이광현, 2008). 이는 교육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인 중등교육이나 고착 및 재생산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배태기로서의 유·초등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교육 불평등의 실재를 오도하는 신념 체계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존하는 불평등을 능력이나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인식하도록 하여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환원주의, 평등과 자유를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 등이 그것이다(백병부 외, 2020). 최근에는 협애하게 정의된 ‘공정’ 담론이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각자도생이 도덕률로 자리를 잡아 평등이나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지향을 위협하기도 한다(김정희원, 2022). 이들 신념 체계는 기본적으로 귀속적 특성에 의해 야기되어 고착화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양상을 각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차이로 간주하면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차이로 환원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들은 교육 불평등 구조의 윗단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아랫단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심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McNamee & Miller Jr, 2013).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이 원활할 때 만들어진 교육출세론(敎育出世論)과 개천용출설(開川龍出設)이 아득한 전설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와 원인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으며(오욱환, 2021), ‘공정’한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후의 불평등은 순전히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정당화되어 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김정희원, 2022). 이와 같은 상황은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 못지않게 실재와 인식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객관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원인과 해법을 개인 수준으로 기인하는 것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이 수반될 때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직시와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생애 교육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IMF 직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나타난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유아 단계에서부터 평생학습의 단계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평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팽만한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의 실재를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 2. 교육불평등의 실태

### 가. 생애 교육 불평등의 공시적·통시적 분석

앞서 기술한 것처럼 다양한 시계열 자료들이 축적됨에 따라 일군의 연구자들이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 진학 성과를 지표로 하여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불평등이 심화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이수빈·최성수, 2020). 이와는 달리 가정 배경이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를 근거로 최근으로 올수록 불평등이 심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장상수, 2016). 반면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김준형(2018)은 학업성취의 전체 분산 가운데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중을 지표로 하여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열악한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취를 거둔 학생의 비율을 ‘개천용 기회불평등 지수’로 명명하여 그 추세가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성취의 격차가 심화하는 추세를 확인하기도 했다(오성재 외, 2016; 주병기, 2018).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데이터에 따라, 교육단계에 따라, 불평등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에 따라 저마다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실태를 진단해 왔으나 생애 과정 전체에 걸쳐서 불평등이 배태, 확산, 고착화되는 양상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가용할 수 있는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애 교육 불평등의 공시적·통시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교육 불평등 실태 분석을 위한 지수 선정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표본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을 비교하거나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서 ‘집단 간 차이 증가’와 ‘이동성 감소’를 교육 불평등 실태 분석을 위한 지수로 선정하였다. 우선 ‘집단 간 차이 증가’는 불평등의 심화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수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수는 말 그대로 상층의 사회경제적 배경 집단과 하층의 집단 간 성취지표의 차이가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OECD(2018)에서는 최근의 사회 불평등 문제는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그 자체보다 끈끈한 바닥과 끈끈한 천장(sticky floors and sticky ceilings)으로 표현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동성 감소’ 지수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오성재 외(2016), 주병기(2018)가 구안한 ‘개천용 기회불평등 지수’나 OECD(2011)의 ‘학업탄력성’ 개념도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분석하는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두 지표 모두 가정 배경을 기준으로 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성취지표 격차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100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100보다 값이 커질수록 가정 배경이 좋을수록 성취지표도 높아지는, 즉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교육 불평등 실태 분석을 위한 지수

불평등 실태 요인	산출 수식
집단 간 차이 증가	$\left( \frac{\text{가정배경 상위 } n\% \text{ 집단의 성취지표 평균}}{\text{가정배경 하위 } n\% \text{ 집단의 성취지표 평균}} \right) \times 100$
이동성 감소	$1 / \left( \frac{\text{성취지표 상위 } n\% \text{ 중 가정배경 하위 } n\% \text{ 집단의 비율}}{\text{전체 집단 중 가정배경 하위 } n\% \text{ 집단의 비율}} \right) \times 100$

### 2) 데이터 및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생애 단계에서 교육 불평등이 배태, 표출, 전이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공시적·통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데이터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지표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정 배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200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망라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표 2〉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각각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가 전술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이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첫째, 둘째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셋째 조건을 온전하게 충족하지는 못하여 가용할 수 있는 최신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한편 TIMSS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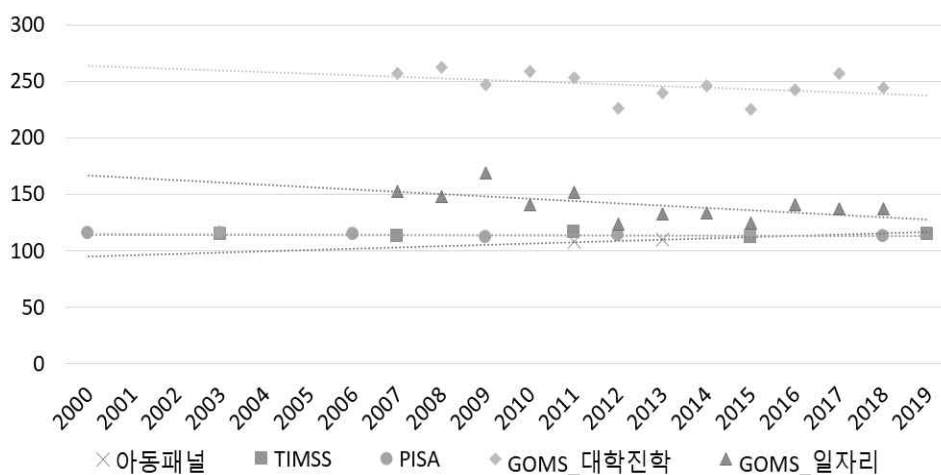
같은 시기에 초4, 중2를 대상으로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4 데이터에서 둘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 불평등 실태를 분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표 2〉 데이터 및 분석 대상 개요

단계	유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평생교육
시기	2011-2014	1995-2019	2000-2018	2007-2018	2012-2019
분석 자료	한국아동패널	TIMSS	PISA	GOMS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자료 형태	종단자료 (2011년 당시 만 3세)	반복 횡단면 자료 (중2)	반복 횡단면 자료 (만 15세, 고1)	반복 횡단면 자료 (해당 연도 대졸자)	반복 횡단면 자료 (만 25~64세)

### 3)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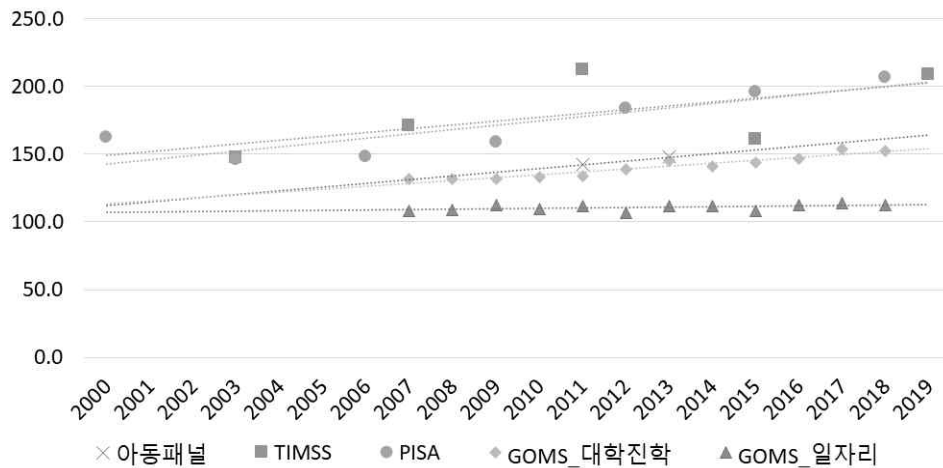
먼저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는 시기별로, 학교급별로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유아교육<sup>2)</sup>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불평등이 완화되거나, 최소한 심화하지는 않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 참조). 교육단계별 ‘집단 간 차이’의 정도를 보면, 유아교육과 중등교육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성취 수준에서의 차이보다는 대학 진학 성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교가 타당하다면 분석 결과는 초·중등교육의 과정에서 누적된 불평등이 대학 진학 단계에서 일시에 분출됐을 가능성과 아울러 대학 진학 과정에서 언더매칭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정 배경에 따른 정보력이나 대학 등록금 부담 능력 등에서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강충서·윤민중, 2018).



[그림 1]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의 공시적·통시적 분포

2)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자료와 달리 아동패널은 종단연구인 까닭에 2011년과 2013년 사이의 지수값 변화에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거시적인 불평등 실태 변화 외에도 해당 아동의 나이가 2세 늘어나면서 겪는 개인적인 불평등 경험의 변화가 혼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적 성취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 교육 수준이 ‘양친 모두 고졸 이하’인 학생이 ‘양친 모두 4년제 대졸 이상’인 학생만큼 높은 교육적 성취를 나타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달리 말하면 개천용이 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양상은 최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인식은 이처럼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의 발판 간격이 벌어지는 양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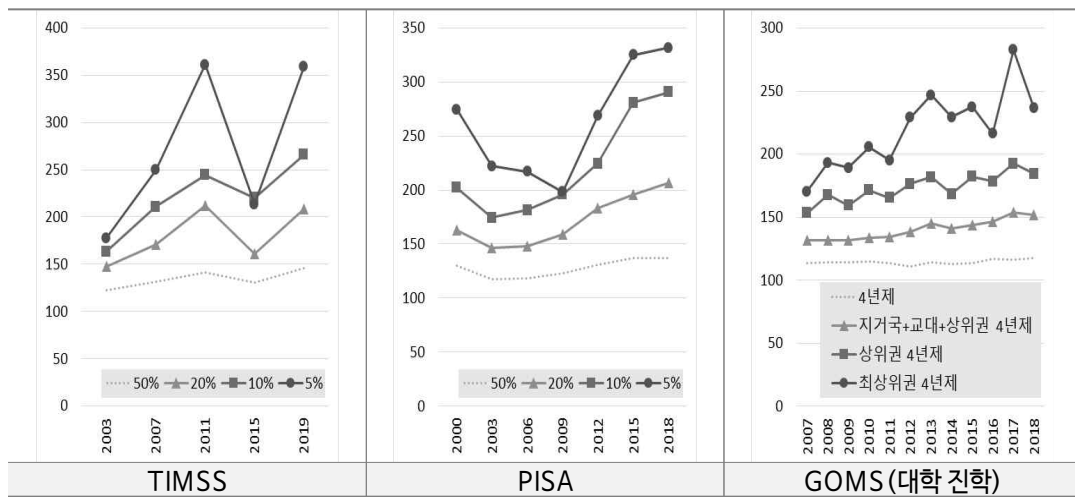


[그림 2] ‘이동성 감소’ 지수의 공시적·통시적 분포

한편 최근에는 불평등의 분포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20:80을 넘어 10:90, 1:99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언사가 넘쳐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40~6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하위 50%의 소득 비중을 합산한 것보다 크다는 등의 분석은 이와 같은 인식이 실재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Alvaredo et al., 2018).

이 연구에서도 ‘학업적 성공’의 기준선을 “학업성취 상위 50% 또는 4년제 대학 진학 (56.9~66.7%)”, “학업성취 상위 20% 또는 지거국+교대+상위권 4년제 대학 진학 (18.5~21.4%)”, “학업성취 상위 10% 또는 상위권 4년제 대학 진학(10.3~12.7%)“, “학업성취 상위 5% 또는 최상위권 4년제 대학 진학(3.8~4.2%)” 순으로 좁혀가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동성 감소’ 지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 진학 성과에서 일관되게 하위계층 학생들이 최상위 성취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성취지표 상위집단 절단점별 ‘이동성 감소’ 지수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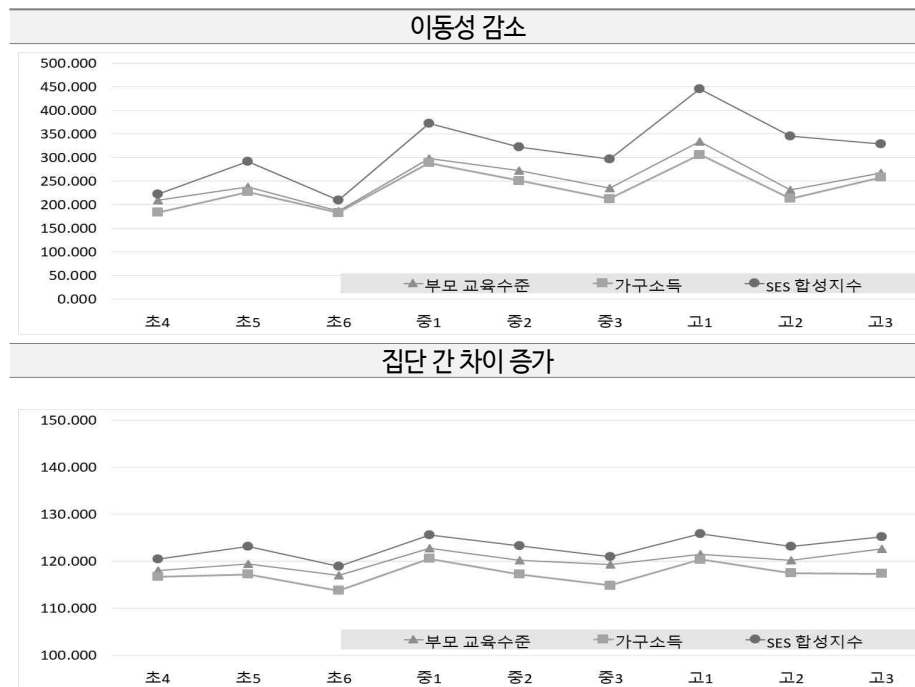
## 나. 교육불평등의 종단적 분석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TIMSS, PISA, GOMS,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등을 이용하여 파악한 생애교육 불평등의 공식적·통시적 실태는 특정 시점 또는 교육단계에서 불평등 실태가 달라지는 양상을 거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간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편재되어 있던 교육 불평등 논의를 종합하는 의의가 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 수준에서 교육단계에 따라 불평등을 경험하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절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는 동시에 개인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구축된 종단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교육종단연구의 초4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경험하는 교육 불평등 실태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 교육 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SES 합성지수 등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 추이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4]를 통해 정리하였다. 먼저 지수의 분포는 ‘이동성 감소 지수’와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에서 모두 SES 합성지수에 따른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으로 부모 교육 수준, 가구소득 순으로 나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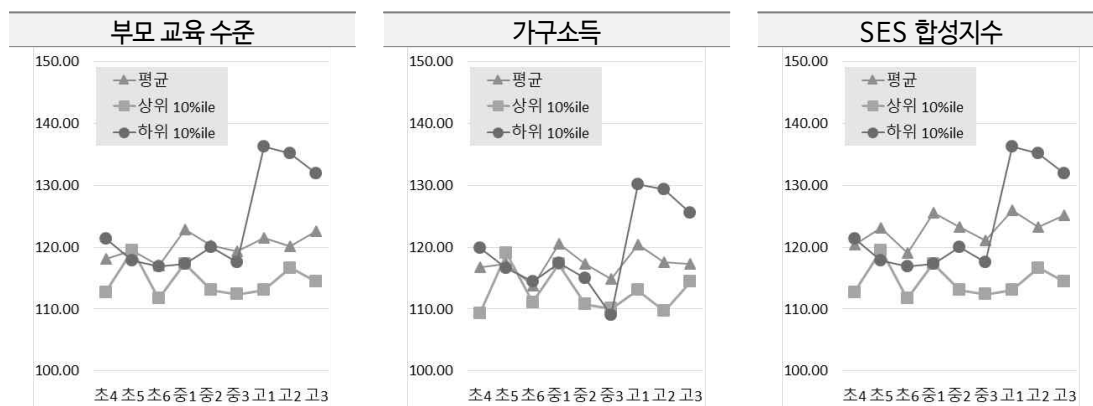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수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점(1학년)에 계층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였다가 해당 학교급에서 졸업을 앞둔 시점(3학년)에 다소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시작점이 4학년인 까닭에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비교적 뚜렷하다. 선행학습 등으로 새로운 학교급에 적응하는 수준에 차이가 두드러졌다가 학교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러한 격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 경기교육종단연구, 2012-2020

한편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에서 개인의 성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추이를 관측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그림 5]와 같이 정리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취 수준을 상위 50%, 20%, 10%, 5% 순으로 좁혀나갔을 때,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성취 수준 상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악화되었다. 한편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를 상·하위 집단에서 각각 평균, 상위 10%ile, 하위 10%ile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하위 10%ile에 해당하는 값에서 상·하위 집단 간 학업성취 차이가 급증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가정 배경 요인을 부모 교육 수준, 가구소득, SES 합성지수 중 무엇으로 하든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적인 시점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를 짐작케 한다.



[그림 5] 가정 배경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 경기교육종단연구, 2012-2020

### 3. 교육불평등에 대한 인식

교육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백병부 외(2020)가 2020년 9월에 경기도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교원 3,211명, 학부모 4,703명, 학생 20,572명의 응답이 담겨 있다.

#### 가. 교육불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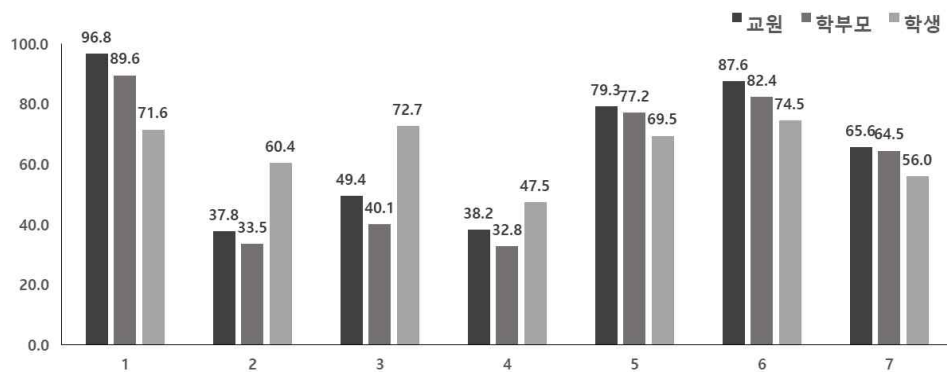
먼저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흠수저로 태어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와 같이 기회와 관련된 항목이나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와 같이 소득(보상)과 관련된 항목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과반이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데 동의한 교원과 학부모가 각각 96.8%, 89.6%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과 학부모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나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 및 보상 체계가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 근본 원인이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적 성취의 격차에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학생들은 교원이나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에 미치는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71.6%)하였지만, “흠수저로 태어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각각 60.4%, 72.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실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여전히 노력을 통한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의 다수는 우리 사회를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생들 중에서 우리 사회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곳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7.5%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다수가 교원이나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보상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분배 불평등이 인정이나 참여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를 물었을 때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돈’과 ‘직업’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세 집단 모두에서 7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세 집단 모두에서 돈보다는 직업과 관련된 질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권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교원 65.6%, 학부모 64.5%, 학생

56.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지위에서의 불평등이 인정이나 대표, 참여에서의 불평등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배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이를 해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6] 불평등 실태 인식

- 주: 1) 1: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2: 흠수저로 태어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3: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4: 누구나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  
 5: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6: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7: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권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2) 그래프는 '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 나.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주의가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개인의 교육적 성취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응분에 의한 것이며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적 성취가 외부의 환경보다는 개인의 지능이나 노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회만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노력을 통해 사회이동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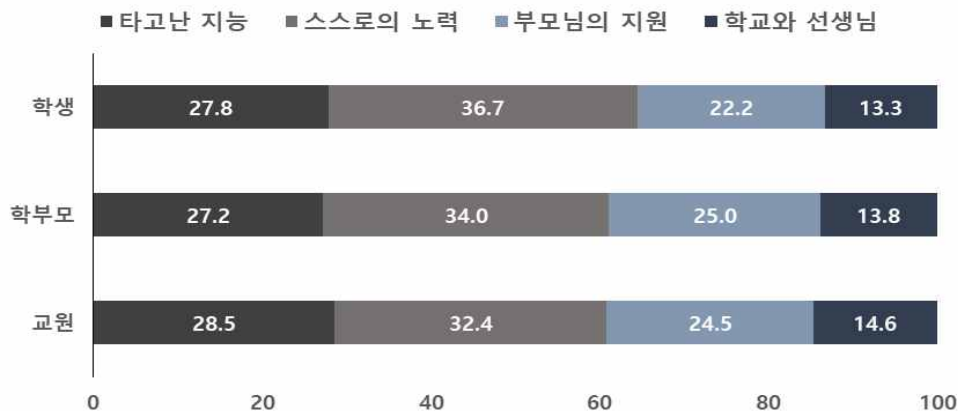
그러나 근래에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사회이동보다는 부의 축적과 이전에 따른 계층고착화가 심화하고 있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실증되고 있다. 교육적 성취는 여전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성취를 얻는 데 외부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다수가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학생 응답자의 40% 정도가(교원과 학부모는 60% 정도가) 흠수저로 태어나면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적 성취 자체에는 외부환경보다는 개인의 지능과 노력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강고하다. [그림 7]은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는 타고난 지능, 스스로의 노력, 부모님의 지원, 학교와 선생님의 네 가지 항목의 합이 100이 되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는 교원(60.9%), 학부모(61.2%), 학생(64.5%) 모두 외부환경보다는 개인의 내적 요인(타고난 지능+스스로의 노력)이 공부를 잘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믿음이 교원이나 학부모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에는 개인의 능력 외에도 부모의 경제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학업 성적으로 대표되는 ‘능력’을 쌓는 데에는 스스로의 노력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 또는 희망사고(wishful thinking)로 볼 수도 있고, 학업성취를 자연적 재능으로 돌리는 자기 위로적 편향(self-serving bias)으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식이 학업성취에서의 우열을 타고난 지능이나 개인의 노력과 같은 요인으로 기인함으로써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타고난 지능이나 스스로의 노력, 학교와 선생님에서의 차이보다는 부모님의 지원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대학 진학이나 사회적 성공과 같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노력 부족과 같은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7] 교육적 성취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표 3〉은 공부를 잘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중에서 타고난 지능과 스스로의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타고난 지능과 스스로의 노력이 공부를 잘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양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다고 고등학생이나 도시 지역 학생들이 부모님의 지원이 공부를 잘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더 작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이들은 타고난 지능과 스스로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학교와 선생님의 도움이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달리 말하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또는 읍면지역에서는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크다는 것이다.

〈표 3〉 선형 회귀분석 결과: 능력주의 태도

	교원		학부모		학생	
	coef.	s.e.	coef.	s.e.	coef.	s.e.
상	-	-	5.635***	0.644	5.457***	0.701
중	-	-	3.780***	0.442	3.262***	0.529
교직 경력	0.354	0.364	-	-	-	-

주: ①소수 상층 집단과 대다수의 하층 집단으로 양극화된 사회

②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

③피라미드 구조이지만 최하층 인구는 비교적 적은 사회

④중간층이 가장 많은 사회

⑤상층 인구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수가 적어지는 사회

#### 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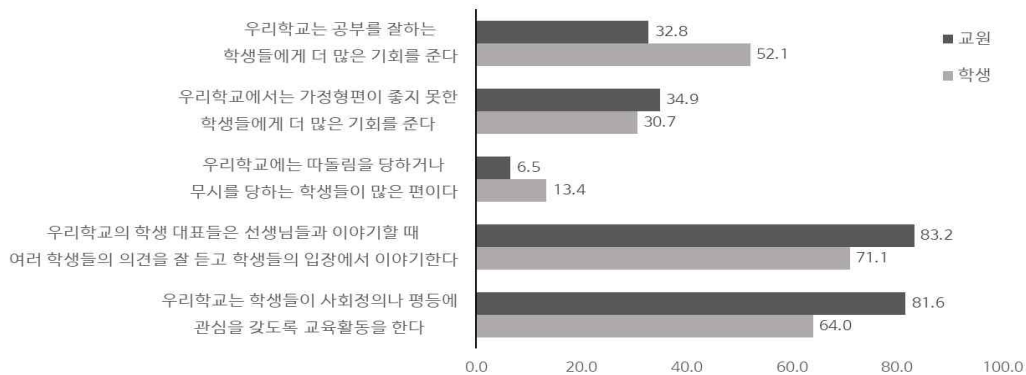
학교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그림 8]과 같이 5개 문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성적에 따른 기회 불평등에 대해서 교원들은 32.8%만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52.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원과 학생 간 인식 차이가 큰 편이었다. 달리 말하면 교원들은 성적이나 가정 배경과 무관하게 학생들을 대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성적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교원보다는 학생들이 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원(34.9%)과 학생(30.7%) 모두 그렇다고 보는 이들이 적은 편이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학생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교원이나 학생 모두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과 학생 모두 학교에서 특별하게 배제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배려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식은 학교에서 형식적 공정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 대표들이 교원과의 의사소통에서 전체 학생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물론 구체적인 응답 분포에서는 교원들이 학생들에 비해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학생 대표가 나름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3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것은 이들 학생들이 가진 요구가 학생 대표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사회정의나 평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원과 학생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 교원들은 81.6%가 그렇다고 하여 이에 대체로 동의하는 한편 학생들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4.0%로 교원들보다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등 교육을 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결과는 교원과 학생들이 학교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양상에 대해 다소 다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교원들은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교를 평등한 공간이며 평등과 정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기술했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에 대한 평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에 대해서는 학생보다 교원들이 훨씬 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의 정도가 실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교원들이 학교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불평등에 대해 학생보다 덜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8] 학교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

#### 4. 결론 및 제언

전술한 결과는 교육 불평등이 학교에 재학 중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 과정이나 결과에서의 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관련 정책이나 예산을 투입하여 가정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것이 특정 단계에서 경험하는 교육의 질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결과, 나아가 그 누적적 효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의 전이 정도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학 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적 투



자가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경험 여부나 유치원 및 유아기 사교육 경험 여부 등에 대한 사회 계층 간 격차는 해소되고 있지만, 가정 배경에 따른 유아들의 어휘력 및 학습 태도의 차이나 이것이 초등학교 진학 이후의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단계까지는 무상교육에 준할 정도로 공적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별도 전형이나 국가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각의 단계에 존재하는 교육 경험의 질적 차이는 여전했으며, 이것이 상급 학교 진학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는 양상 또한 본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정책적 지원으로 가정 배경에 비해 다소 양호한 학업성취 수준을 얻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천용’으로 명명될 수 있을 만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의 교육적 성취 수준을 얻을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생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불평등은 재학 중에 표출되지만, 취학 전 가정에서 배태되어 졸업 후의 성과나 삶의 질, 나아가 자녀 세대의 교육 경험으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와 같은 양상이 반복·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가정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험이나 ‘낙관적 희망’에 근거하여 이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교수-학습의 기회를 더 확대하거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학교들 중에서도 교수법을 개선하여 교사들의 집단적 유능감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가 존재한다. 이들 학교가 거둔 성과를 인정하고, 성과의 원인을 파악하여 다른 학교에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배움과 협력을 중심에 둔 수업 혁신과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 조성을 통해서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모든 학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혁신하고 학교 풍토를 개선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학교나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협동학습이나 개별학습을 비롯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교수-학습 방법이나 총체적 혁신을 지향한다는 혁신학교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여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특히나 학교 구성원들이 평등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연구는 귀속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 차이가 교육 경험 및 결과에서의 차이로 이어지는 현상을 문제상황으로 규정하면서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생애 교육 불평등의 실태뿐만 아니라 평등에 대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이데올로기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할 때 사회의 구성원들이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직시할 수 있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대증적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충서·윤민중(2018). 대학은 성적순? 대학 입학에 있어 언더매칭 현상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28(4), 1-29.
- 김정희원(2022). 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 김준형(2018). 부모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OECD 5개 국가의 교육 불평등 비교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8(1), 1-34.
- 김준형(2018). 부모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OECD 5개 국가의 교육 불평등 비교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8(1), 1-34.
- 김창환·변수용(2021).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 박영스토리.
- 박미희(2020).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 격차: 출신 지역 및 대학 소재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1), 27-56.
- 박희진·남궁지영(2019). 학업성취 변동 중단 분석: 교육격차 완화 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9(4), 65-88.
- 백병부·권순정·심재휘·윤선인·이혜정(2020). 평등교육실천론. 경기도교육연구원.
- 백병부·김경근(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변수용·이성균(202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박영스토리.
- 심재휘·김경근(201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확대가 고교유형 간 학업성취 격차에 끼친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7(4), 49-80.
- 양흥권(201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평생교육의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18(2), 103-130.
- 오성재·강창희·정혜원·주병기(2016). 가구환경과 교육성취의 기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한 연구. *재정학연구*, 9(4), 1-32.
- 오욱환(2017). 유아교육과 보육, 불평등의 묘판. *교육과학사*.
- 오욱환(2021). 교육 불평등: 학교교육에 의한 불평등의 재생산. *교육과학사*.
- 이광현(2008). 성인의 평생학습비 규모 및 실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7(3), 113-141.
- 이수빈·최성수(2020). 한국 대학들의 사회이동 성적표: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과 유지에서 대학이 하는 역할. *한국사회학*, 54(1), 181-240.
- 장상수(2016). 벌어지는 틈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 *한국사회학*, 50(5), 107-140.
- 전하람·심재휘(2018).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분석: 강화적 전략과 보완적 전략의 공존. *한국교육*, 45(3), 61-91.
- 주병기(2018). 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 김성진 외(편),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울곡출판사, 230-285.

- Alvaredo, F., Chancel, L., Piketty, T., Saez, E., and Zucman, G. (2018).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장경덕 역(2018).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글항아리.
- Khan, S. R.(2012). Privilege. 강예은 역(2019). 특권, 후마니타스
- McNamee, S. J. & Miller Jr, R. K. (2013). The meritocracy myth(3rd ed.). 김현정 역(2015). 능력주의는 허구다. 사이.
- OECD. (2011). Against the odds: Disadvantaged students who succeed in school.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 Sandel, M.(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함규진 역(2020).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